SPOT
ISSUE

12 Mar. 2026

DAOL 다올투자증권

(Overweight)

은행

(2월) 은행 여수신 동향: 기업이 부각

김지원
금융 I jiwonkim@daolfn.com

● 여신 동향

예금은행 2월 대출은 기업대출 중심으로 부각. 가계대출 잔액 감소폭 -0.3조원(vs. 26년 1월 -1.1조원 vs. 25년 2월 +3.2조원)으로 전년동기와 달리 여전히 감소 중이지만 감소폭 축소되고 있고, 기업대출 잔액 증가폭 +9.6조원(vs. 26년 1월 +5.7조원 vs. 25년 2월 +3.5조원)으로 전년동기와 전월비 증가폭 확대. 특히, 기업대출 증가폭 확대 주목. 대출잔액은 가계 1,172.3조원(비중 45.9%; YoY +2.5%, MoM flat), 기업 1,379.2조원(비중 54.1%; YoY +4.0%, MoM +0.7%). 합산 대출잔액 2,551.5조원(YoY +3.3%, MoM +0.4%). 가계대출과 다르게 기업대출 YoY 변화율은 상승 중. 중동 갈등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에 따라 예금은행 2026E 연평균 대출성장률 3.9%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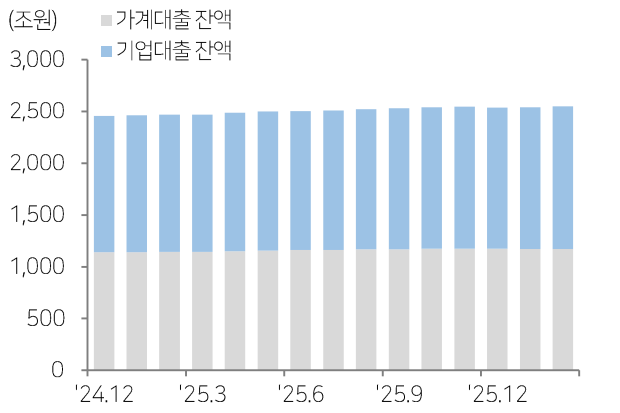
가계대출의 여신종별 잔액 증감폭은 주택담보대출 +0.4조원(vs. 26년 1월 -0.6조원 vs. 25년 2월 +3.4조원), 신용대출 포함한 기타대출 -0.7조원(vs. 25년 1월 -0.4조원 vs. 25년 2월 -0.2조원). 주담대는 전월비 소폭 증가 전환되었으나, 전년동기비 증가폭 크게 축소. 연초 신학기 이사수요의 계절성을 고려해도 크게 증가한 수준은 아니라고 해석. 첫째, 은행들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 은행들의 신규취급 주담대 금리는 작년 연말 이후 상향 중. 둘째, 대출수요가 이동했기 때문. 주택 매매거래량은 수도권 중심으로 증가하며 비수도권과의 양극화 발생. 또한, 주택 매매가격지수도 수도권 중심으로 상승. 그럼에도 대출 증가폭이 크지 않았다는 점은 수요가 이동했다는 의미로 해석. 이는 은행권 자체 주담대는 감소 중이나, 정책성대출 증가폭 확대로 설명 가능. 또한,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 확대도 방증. 주금공 등 주요 보증기관 중심으로 1월과 2월 연이은 금리 인상 중이나, 정책성대출 동향은 확인 필요. 기타대출은 명절 및 연초 상여금 등 현금 유입으로 전월비 다소 감소폭 확대되었으나, 국내외 주식 신용거래 수요 증가에 따른 자금 수요 현황상 전년동기비 크게 감소하지 않음. 향후에도 현 상황 지속을 가정

기업대출의 여신종별 잔액 증감폭은 대기업 대출 +5.2조원(vs. 26년 1월 +3.4조원 vs. 25년 2월 +0.4조원), 중소기업 대출 +4.3조원(vs. 26년 1월 +2.3조원 vs. 25년 2월 +3.1조원). 특히 대기업 대출 중심 증가. 총 기업대출 잔액 중 대기업 대출 비중 확대. 대기업 대출 22.0% vs. 중소기업 대출 78.0%. 연초 운전자금 수요 증가 등 수요 측면과 동시에 은행들의 기업 대상 영업 확대 지속 중. 향후에도 현 상황 지속을 가정. 업권별로는 확인 가능한 4Q25 기준 금융보험업(22.0%) 중심으로 수요 증가 중

● 수신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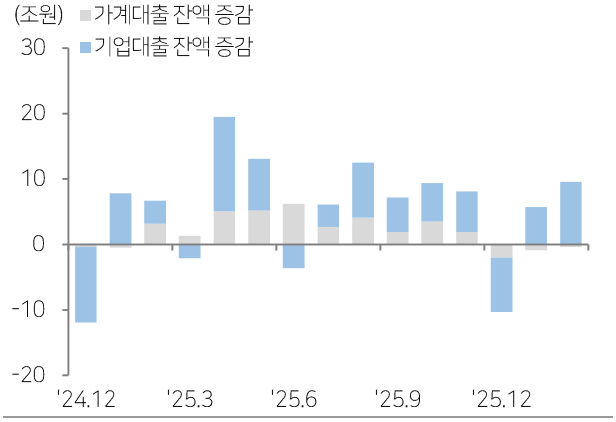
예금은행 2월 수신은 증가 전환. 증가폭 47.3조원(vs. 26년 1월 -50.8조원)으로 증가 전환. 수신잔액 2,531.2조원(YoY +4.3%, MoM +1.9%). YoY 변화율은 전년동기와 동일. 가계자금보다 기업 및 지자체 자금 유입 영향으로 해석

Fig. 1: (2월)대출잔액: 가계 MoM flat, 기업 MoM+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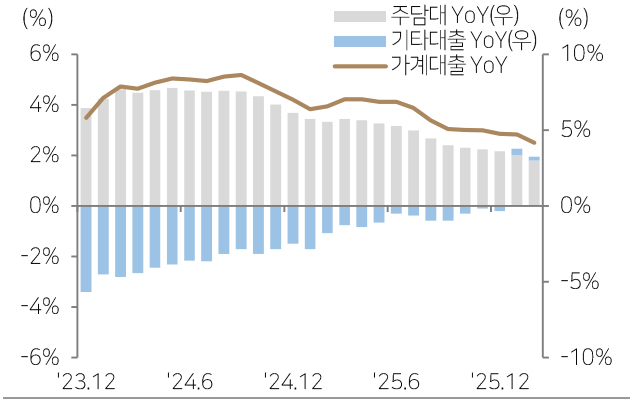
Source: 한국은행, 다올투자증권

Fig. 2: (2월)대출잔액 증감: 가계-0.3조원, 기업+9.6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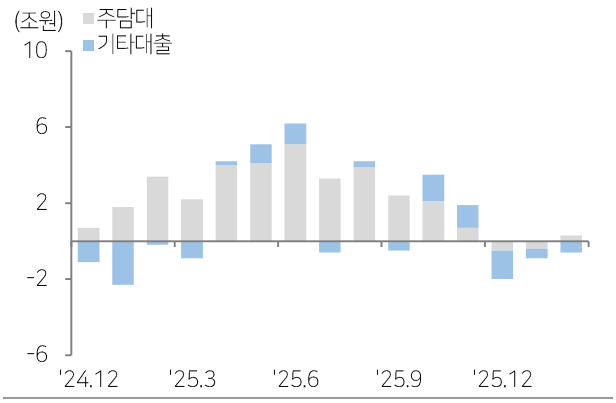
Source: 한국은행, 다올투자증권

Fig. 3: (2월)가계대출 잔액 YoY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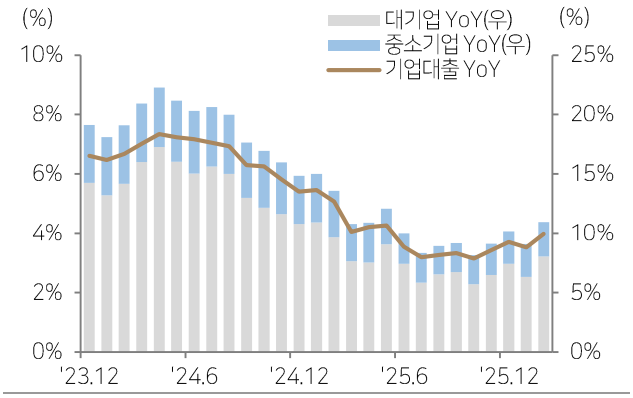
Note: 항목별 증감율을 단순 누적하여 기여도 확인 목적
Source: 한국은행, 다올투자증권

Fig. 4: (2월)가계대출 증감: 주담대+0.4조원,기타-0.7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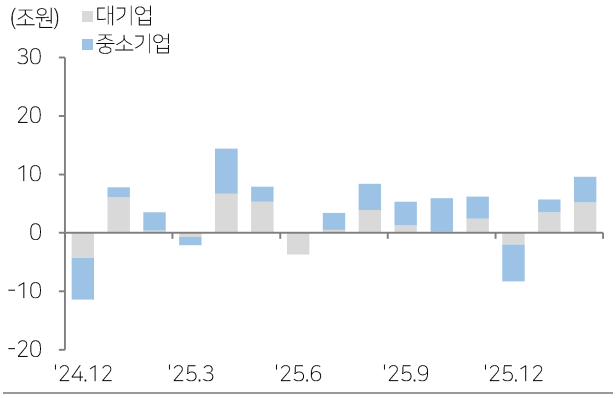
Source: 한국은행, 다올투자증권

Fig. 5: (2월)기업대출 잔액 YoY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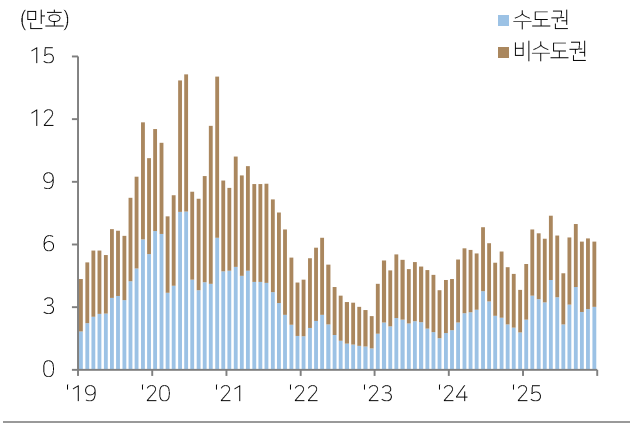
Note: 항목별 증감율을 단순 누적하여 기여도 확인 목적
Source: 한국은행, 다올투자증권

Fig. 6: (2월)기업대출 증감: 대기업+5.2조원,중소+4.3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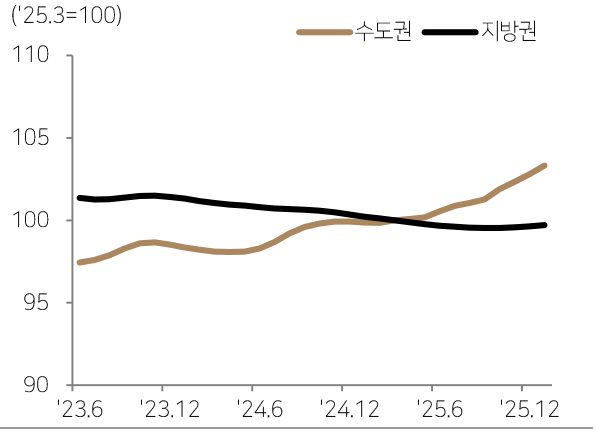
Source: 한국은행, 다올투자증권

Fig. 7: (주택총합) 월별 매매거래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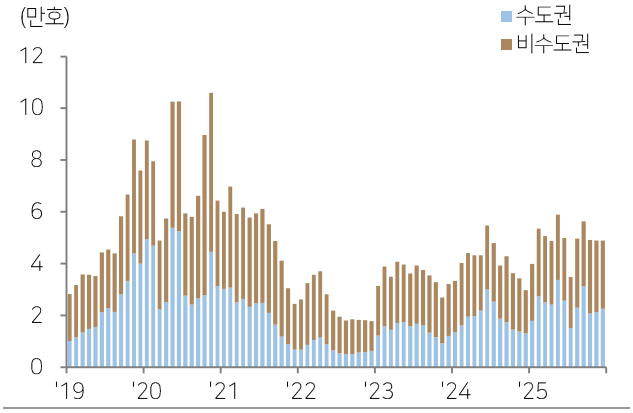
Source: 한국부동산원, 다올투자증권

Fig. 8: (주택총합) 월별 매매가격지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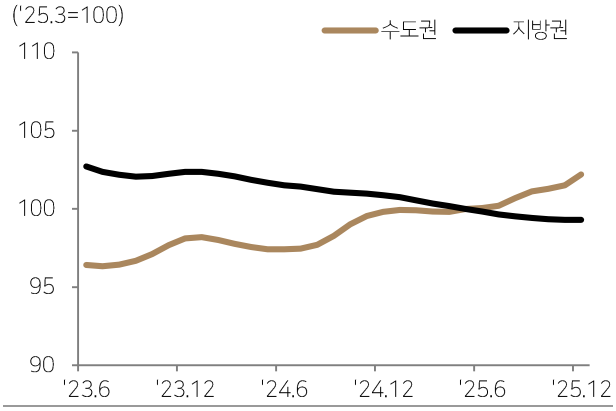
Note: 25년 4월 지수 기준 시점 변경된 점 감안
Source: 한국부동산원, 다올투자증권

Fig. 9: (아파트) 월별 매매거래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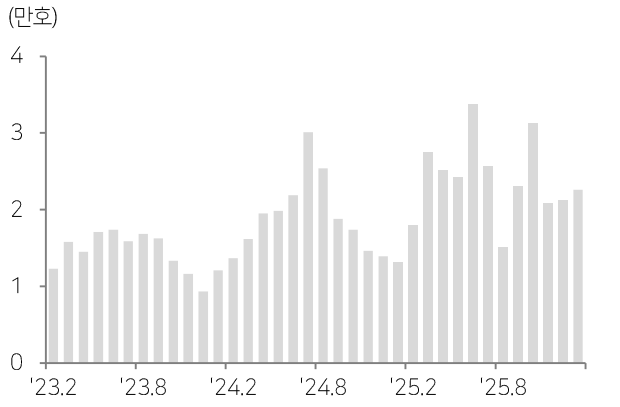
Source: 한국부동산원, 다올투자증권

Fig. 10: (아파트) 월별 매매가격지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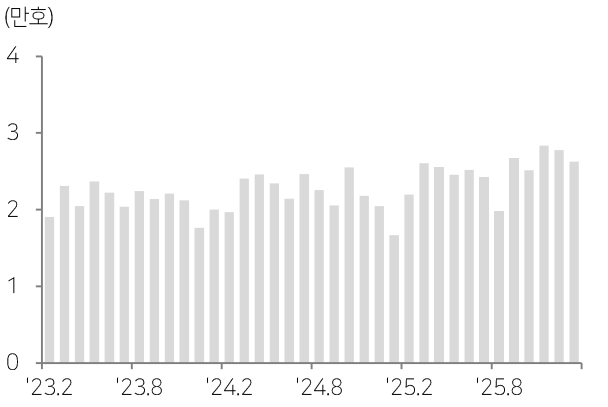
Note: 25년 4월 지수 기준 시점 변경된 점 감안
Source: 한국부동산원, 다올투자증권

Fig. 11: (아파트) 월별 매매거래량 동향: 수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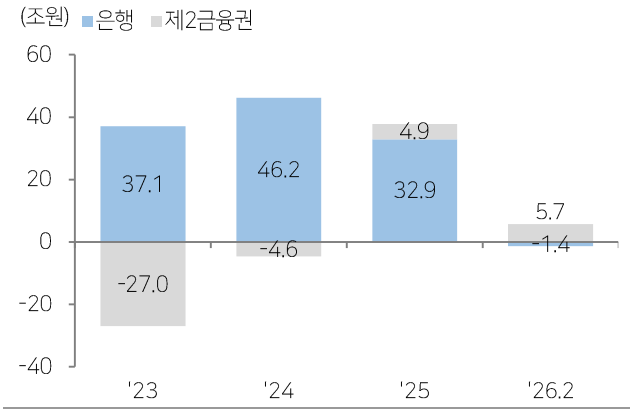
Source: 한국부동산원, 다올투자증권

Fig. 12: (아파트) 월별 매매거래량 동향: 비수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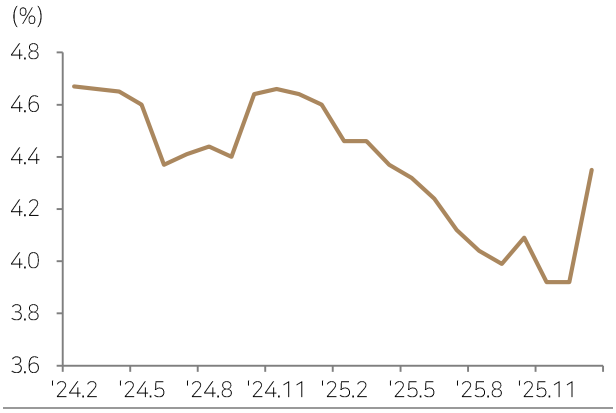
Source: 한국부동산원, 다올투자증권

Fig. 13: 업권별 가계대출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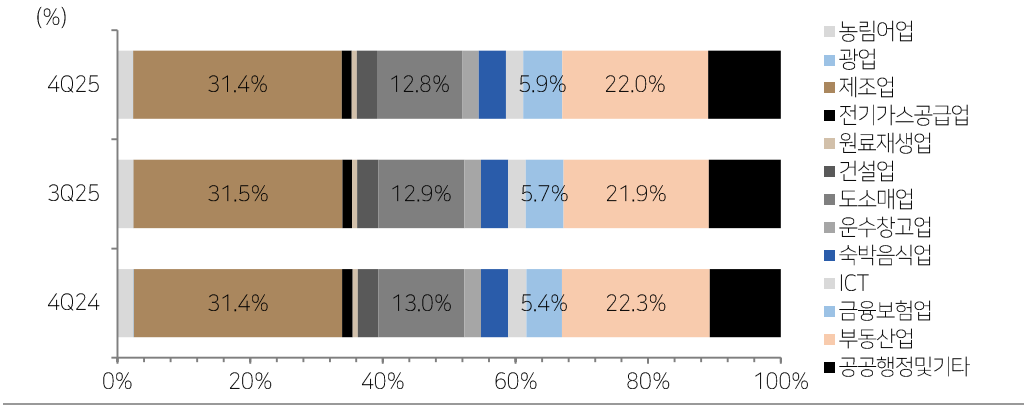
Note: 26년은 2월까지 누적
Source: 금융위원회, 다올투자증권

Fig. 14: 보증대출 금리 추이(신규취급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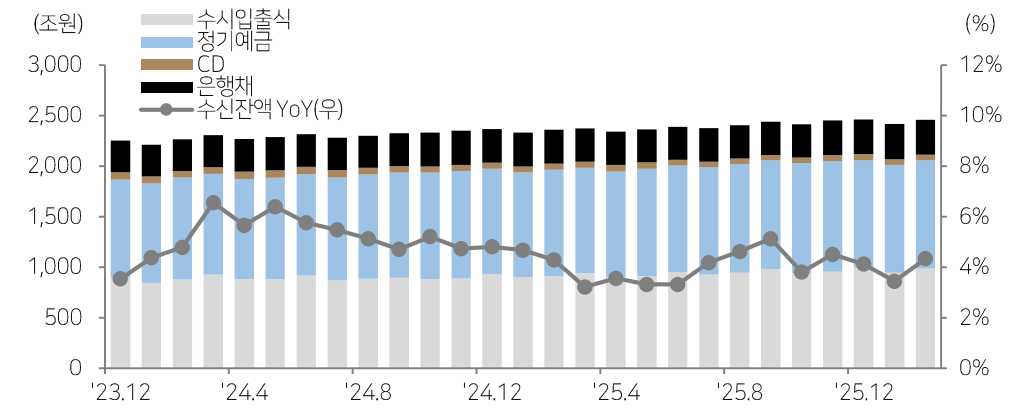
Source: 한국은행, 다올투자증권

Fig. 15: 예금은행 대출금 내 산업군별 비중: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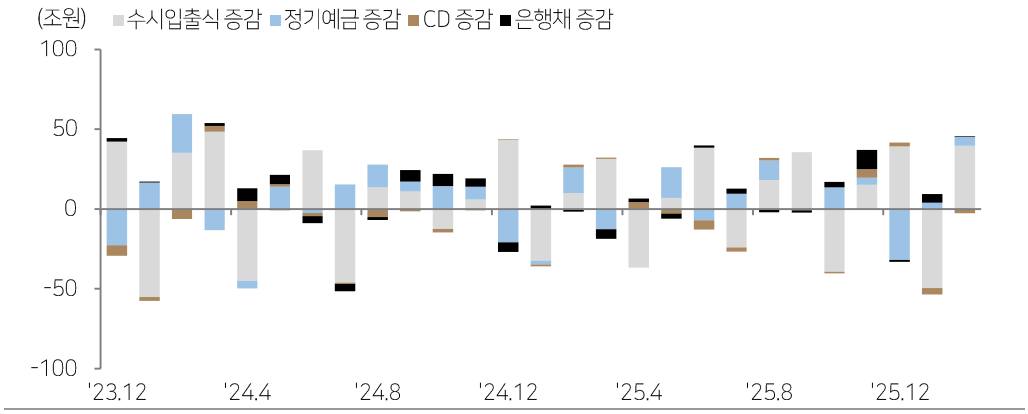
Source: 한국은행, 다올투자증권

Fig. 16: (2월) 수신 유형별 잔액 및 총 잔액 YoY 변화율



Source: 한국은행, 다올투자증권

Fig. 17: (2월) 수신잔액 증감: 기업 및 지자체 자금 중심 수시입출식 예금 증가



Source: 한국은행, 다올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본 자료를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인수·합병의 주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추천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계열사가 아닙니다. 당사는 동 종목에 대해 자료작성일 기준 유가증권 발행(DR, CB, IPO, 시장조성 등)과 관련하여 지난 12개월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에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 및 그 배우자는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조사분석담당자는 어떠한 외부 압력이나 간섭 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나눔스퀘어'와 '아리따 글꼴'을 사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투자등급 비율

BUY : 88.7%	HOLD : 11.3%	SELL : 0.0%

투자등급 관련사항

아래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기대수익률을 의미
· BUY: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이상.
· HOLD: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이상~ +15% 미만.
· SELL: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미만.
.

투자 의견이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등급 기준과 일시적으로 다를 수 있음
동 조사분석자료에서 제시된 업종 투자의견은 시장 대비 업종의 초과수익률 수준에 근거한 것으로,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의견과 다를 수 있음
· Ov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Neutral: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Und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 경우

주) 업종 수익률은 위험을 감안한 수치